



2020 제주 문화계 결산 ③ 미술

# 비엔날레 또 연기됐으나 미술 축제는 확장

2회 비엔날레 내년으로 제주미술제, 4·3미술제 코로나에도 굳건히 치러 아트페스타인제주 첫발

갤러리이디 등 공간 늘어

두 번째 제주비엔날레는 또다시 해를 넘겼다. 제주미술제, 4·3미술제는 계속됐고 아트페스타인제주가 탄생하는 등 미술 축제는 전진했다. 한라일보 1층엔 갤러리 이디(ED)가 문을 열었다.

▶내년 늦춰지만 예산 확보 등 혐의로 예상=지난 2월 '할랑, 크고 많고 세다'란 주제 아래 국내외 참여 작가 명단을 공개했던 2020 제주비엔날레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잠정 중단했다가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2021년 개최되더라도 4년 만인 데다 새해 예산이 절반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혐로를 예고했다. 2회 비엔날레 제주 작가 비율은 50%가량이었다.

제주비엔날레는 오동철지만 사반세기 넘는 역사의 제주미술제, 탐라미술제는 굳건했다. 탐라미술연합회



제주시가 주최한 아트페스타인제주 행사장인 산지전갤러리에 출품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의 27회 4·3미술제는 코로나 여파로 7월로 늦추며 국내외 57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제주미술협회가 주최하는 25회 제주미술제는 제주도립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올해 처음 도립미술관에서 펼쳐져 미술동인을 중심으로 제주미술사의 일단을 들여다봤다. 제주문화포럼의 15회 제주신화전, 아시아예술경영협회의 4회 아시아미술교류전도 열렸다.

이도1동이 4회에 걸쳐 진행한 제주국제아트페어&페스티벌은 2년 만에 아트페스타인제주로 새 옷을 갈아

입었다. 제주시 주최로 시민 참여 전시 프로그램, 야외 설치 등 원도심 산지전 일대를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꾸몄다. 추자도에선 '추자섬 예술기지 프로젝트'의 개막을 알렸다. 미술 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내건 아트제주는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는 멈췄다.

▶공적 영역 청년 지원 늘고 중진 수상 소식=공적 영역에선 만 40세 이하 청년 작가 지원이 확장됐다. 제주도문화진흥원의 26회 청년작가전은 내용과 형식을 바꿔 공모를 통해 강영훈·강주현·김상균 등 3명을 뽑

아 창작지원금 등 밀도를 높인 행사로 추진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됐다. 제주도립 제주현대미술관은 '2020 뉴 라이징 아티스트' 기획전의 첫발을 뗐다. 올해 초대 작가는 강주현·김강훈·김선일·좌혜선 등 4명이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청년 작가를 위한 아트마켓을 시도했다.

중진들의 수상 소식도 있었다. 강요배 작가는 대구시가 제정한 대구미술관의 제2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다. 김현숙 작가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광화문아트포럼의 '올해의 작가'에 뽑혔다.

심헌갤러리 등 사설 전시 공간들은 코로나에도 꾸준히 미술전을 마련했다. 한라일보는 지난 4월 갤러리이디를 개관해 번시지·강승화·채기선 초대전을 시작으로 제주와 제주너머의 세계로 향하는 제주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입체와 평면을 넘나들며 전방위 작업을 벌였던 한명섭 작가의 유족들은 배관을 이용한 국내 모 작가의 조형물을 두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연초에 불거진 이 일은 지역 작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진선희기자



온라인 음악회 '그래도! 메리크리스마스'를 펼치는 클래식 앙상블 카메라타.

## 위로의 음악, 그래도 크리스마스

카메라타 랜선 음악회 클래식과 캐럴 등 선사

제주 음악인들이 감염병 시국을 건너고 있는 이들에게 성탄절을 맞아 위로의 선율을 들려준다. 클래식 앙상블 카메라타(대표 박민정)가 준비한 '2020 크리스마스 음악회'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크리스마스 음악회는 '그래도! 메리크리스마스'란 이름을 달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떠나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서로의 안면을 염원하는 의미로 기획했다.

코로나 여파에 랜선을 타고 제주 지역 케이블방송(KCTV)으로 전해질 크리스마스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며 시작된다. 이어 소중한 일상에 대한 바람, 노래하고 춤추는 모든 인류

를 위한 격려,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쓰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참사랑과 평화를 위한 기원을 담은 음악 등 총 16곡을 선사한다.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흐른다.

앙상블 카메라타 단원인 박민정, 김재현, 김혜미, 김신우, 예지영, 안지아, 원양하씨와 함께 칸시온앙상블, 소누스어린이합창단이 우정출연한다.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지난 14일 제주시 원도심 산지전갤러리에서 공연 장면을 녹화했다. 민경연씨가 연출을 맡았다.

방영 일정은 24일 오후 3시 30분과 8시, 25일 오후 2시와 10시. 향후 제주문화예술재단, 앙상블 카메라타 유튜브 채널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문화지원기반 공공예술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제주 예술콘텐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제주 소재 창작 공연·전시 영상콘텐츠 제작 해외 홍보 코로나에 온라인 교류 사업

제주 예술인들의 영상 작품을 랜선을 타고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향한다. 제주도는 23일 "영상콘텐츠로 제작된 도내 7개 개인·단체의 국악, 연극, 웹툰 등을 동아시아문화도시, 자매·우호 등 20개국 50여개 도시 등에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상 콘텐츠 홍보 사업은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으로 마련됐다.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제주 지역 예술인들을

파견해 문화예술 교류를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국제 교류가 중단되면서 영상 촬영을 통한 온라인 교류로 바뀌었다.

올해 교류사업에는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사)마로, 두근두근시어터, 자르트, (사)오페라인제주, 김민수, 한은주씨가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 빛깔을 품은 창작 공연, 전시 등을 준비했다.

국악연희단 하나아트는 '설문대할 망분풀이'를 주제로 창작했다. 제주섬을 창조한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연물 약기와 기악 선율로 풀어낸 음악극이다. 두근두근시어터도 설문대할망의 신화를 재해석한 '할머니의 이야기 치마'를 제작했다. 마로는 보물로 지정된 화첩 '탐라순력도'를 소

재로 노래, 춤, 미디어 파사드 등을 이용한 공연을 만들었다.

오페라인제주는 창작 오페라 '해녀'를 공연한다. 오페라와 웹툰의 협업으로 제주 해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크로스오버앙상블 자르트는 '계화타령', '왕이자랑', '애월' 등을 선보인다. 제주민요, 현대무용, 퓨전국악 등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아냈다. 김민수는 문화예술공간 '문밖'에서 열었던 흑우전시회, 한은주는 모노드라마 '자정비'를 보여준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21개 한중일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올해는 동남·동북 아시아권, 남미권, 유럽권 등으로 교류도시 확대를 꾀했다. 진선희기자

11~12월 문화예술사업 정산 기한 내년 2월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올해 11~12월에 추진된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정산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이뤄졌다. 특히 11~12월 지원사업 시행 비율이 전체 사업의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예술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시기에 벌인 사업에 한해 정산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기한 연장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지원(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일반예술 창작활동 지원, 우수기획 창작활동 지원,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예술공간 특성과 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연구와 조사 지원이다. 문의 800-9132-4. 진선희기자

## 빛으로 세운 기둥 찰나의 유토피아

강태환 설치작품 전시 한화 아쿠아플라넷서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장소들의 바깥에 있는 곳을 의미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제주 강태환 작가가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광섬유 작업을 통해 헤테로토피아가 떠오르는 작품을 설치했다.

강 작가가 빛으로 세운 기둥 앞에 서면 처음에는 반짝이는 빛의 순간을 경험하며 황홀함에 빠진다. 하지만 이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빛들은 신기루처럼 순간의 행복임을 느끼게 된다.

김주욱(예술학)씨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에서 느끼는 찰나의 송고'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작가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공간이 아닌 불현듯 일상 속 전시장에서 예고없이 나타



강태환의 '송고의 순간'.

나는 잠깐의 빛의 체험으로 유토피아적 질서에 대항한다"며 "너무나 현실적인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공간 체험을 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헤테로토피아적 질서를 선택한 듯 하다"고 말했다. '송고의 순간'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2021년 9월 14일까지 전시된다. 앞서 강 작가는 제주시 텔문도갤러리에서 '헤테로토피아'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수 상**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김재홍**  
(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 회장)



**고향심**  
(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 자원위원)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장**



**강창용**

통합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리더스 2기**  
회장 강승호 의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장**



**강창용**

통합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5기**  
회장 조재홍 의원일동